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말씀 요약과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2. 고난이나 타인과의 갈등은 내 안의 숨은 자아를 발견하고 주님께 넘기는 기회입니다. 마귀가 주는 정죄와 부정적인 생각에 말려들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구하는 것을 넘어 이미 이루신 은혜에 "아멘"과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성령의 호흡이며 영적전쟁입니다. 타인과의 갈등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묵상해 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삼성교회 연락처

+82 02-2293-4421

http://samsungch.or.kr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org

information@nasungchurch.org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나소식

125호

삼성교회 나성교회

2026년 9월 20일 SAMSUNGCH.OR.KR 125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21장 1 - 8절

날짜: 2026.9.6.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들 이삭과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부르심의 조상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의 확장인 교회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삶의 목적이라 말한 것처럼, 구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이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아들이 즉시 오지 않았고, 조카를 의지하거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등 육신의 생각과 수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 힘과 수단을 내려놓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모든 육적 노력이 중지되고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자신 안에 믿고 의지하는 세상 것이 많으면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나를 포기할 때 비로소 성경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썩어질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를 주시기 위함이며, 예수를 받으면 우주 전체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탄의 속성을 받아들여 '나'라는 자아가 형성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앉게 된 데 있습니다. 세상 상식과 인과 법칙, 자기 판단에 지배받는 자아를 붙들고 있는 한, 성경을 지식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는 있어도 예수를 실제 생명으로 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바뀐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은 옛 창조를 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웃음'과 '기쁨'을 뜻하는 이삭의 이름처럼,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본문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대연(큰 잔치)을 배설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일이나 돌 때 잔치를 하지만, 믿음의 가문은 어린아이의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때 잔치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늘 젖이나 먹고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떤 고난과 말씀 앞에서도 순종이 되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도의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이나 고난을 맞닥뜨릴 때, 이는 내 안에 숨어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주님께 내려놓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상대를 공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때 성도와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 낙담의 유혹이 찾아올 때 성도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며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실수나 죄는 다시 지옥에 갈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 아래 있는 '의인의 실수'일 뿐이므로 마귀의 정죄에 말려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달아 창조주의 영역인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의 틀을 넘어,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은혜에 "아멘"과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성령의 호흡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아들 약속으로 시작하여 온전케 되었듯, 우리의 일생 역시 내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육신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 안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며 살아갈 때, 성도는 참된 승리와 영원한 구속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교 회 후 원

우리은행
1005-602-532517
예수교대한웨슬레회삼성교회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사역자들(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윤성한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 될 수 있도록
-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중국 길연교회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신아영 사모 - 자궁선근증으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개복)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양희 집사(한나선교회) –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한나선교회) – 남편(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한나선교회)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B 집사(2여선교회)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한나선교회) -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3남선교회)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이상문 집사 (모세선교회) - 파킨슨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선교회) -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
- 송종철 장로 (모세선교회) -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회복
- 김세훈 장로 (여호수아 선교회) -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 유니스 안 (4,5여선교회) -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 Lee, Miriam (에스더 선교회) -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 후유증 회복을 위해
- 김상준 형제 (4,5남선교회) - 위암 수술후 항암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선교회) -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 오른쪽 어깨 탈골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감소과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님 -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통증회복.
- 송제인 집사(1여선교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추석 가정예배

1. 기 도 — 인도자

2. 찬 송 — 다 함께

찬송가 460장(새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204장(새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 성경봉독 — 다 함께

시편 127편 1절~2절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4. 말씀 나누기 — 인도자

제목 :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가정

명절이 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가정을 위해 기울인 수고와 노력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가정을 세우고,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며, 내 능력으로 삶의 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세우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허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우며 애쓰는 그 모든 수고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육적 자아의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은 나를 다독여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세우려 했던 주인 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내 뜻대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는 집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육의 수고와 자아의 의를 십자가에 못박으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우려는 집, 내가 지키려는 성, 내가 이루려고 했던 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단 1초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십자가에서 터져 나올 때, 나 중심의 수고가 끝나고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피로를 푸는 수면이 아니라, 내 수고와 염려를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과 주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는 주체에서 내려오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가정입니다.

이번 추석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 가정 더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내 힘으로 지켜내려 했던 나 중심의 수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가 끝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정에 풍성히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성을 믿으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 은혜 나눔 — 다 함께

내 힘으로 애쓰며 염려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6. 주기도문 — 다 함께

주간일정

- 이번 주 구역예배는 추석연휴로 인해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삼나소식 모바일

http://samsungch.or.kr/samnanews